

아버지의 사랑 깨우친 격언집

배우리 외 「삶의 기둥이 된 아버지의 한마디」

배우리 외 88인의 「삶의 기둥이 된 아버지의 한마디」(집현전)는 제목이 보여주고 있듯이, 80대에서 30대 중반에 이르는 저명인사에서부터 평범한 사회인까지의 가슴깊이 새겨둔 아버지의 한마디를 적어 놓은 책이다. 중년 혹은 노년의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중요한 삶의 기둥이 되었다는 체험적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 살면서 아버지 노릇을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세대에게 '아버지 노릇'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글들이다.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진자리 마른자리 같아누신 어머니의 사랑만을 대개 생각하게 되고, 서점에 가 보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자식이 쓴 글은 거의 없다. 그런데, 육필로 들려주시는 할아버지·할머니와 아저씨·아주머니의 자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생생한 기록은 가정교육의 고전으로 간직하고 싶은 책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자식에게 줄 교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며, 인생관을 세우는 지침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강점은, 평범하나 부끄럽지 않은 각계각층의 여든아홉 사람의 가슴에 새겨진 아버지의 한마디를 적었다는 것이다. 집필진의 수효가 많은 만큼 연령층도 다양하고 학자, 의사, 정치가, 상인, 교사, 주부, 예술가, 농부, 종교인, 회사원, 모범운전자, 무형문화재, 사업가, 한글운동가 등 직업도 폭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친근감을 갖고 주의깊게 읽게 된다.

1부 「제법」으로 살게 만드신 아버님」, 2부 「네 뜻대로 하여라」, 3부 「자식이 갈 길을

밝혀 주신 아버님」, 4부 「어릴 적 그 대청마루」, 5부 「무연중의 가정교육」, 6부 「아버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소재목이 말해주듯 쉽고도 인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책머리에 나타나 있듯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이 嚴父慈母의 교육으로 남성으로서의 존재가 중요시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근 2천년 동안 수난 속에서도 부권의 존재로 인해 민족을 이어온 유대민족의 예를 생각해보는 점에서 인생의 좌표를 제시하는 아버지의 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 책은 혼자서 한번 읽고 덮어두기보다는, 책꽂이에 꽂아두고 생각나는 대로 틈틈이 읽어 누구나 삶의 교훈으로 몸에 익혀야겠고,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식구가 두루 돌아가며 읽어 대화의 자료로 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역할을 되새기는 고전으로 삼아 보라고 권하고 싶다.

강호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690-63 13통10반 · 국어교사

神仙道の 뿌리, 새 민족이념 제시

安昶範 지음 「民族思想의 源流」

오늘의 세계는 철학빈곤의 시대라고들 한다. 말하자면 인생살로의 지표적인 이념체제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군 개국 무진년으로부터 다시 72周甲의 무진년에 즈음하여 더더욱 그 허전함을 느끼는 한편, 또한 무엇인가 희망적인 서광을 예견하는 듯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음을 느낀다. 세계적인 큰 잔치가 이땅 단군의 유토에서 열리는 올해에 지혜의 샘을 발견한 소식이 전해져 왔다. 저 멀리 섬나라 탐라국,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의 영기가 서린 제주에서 보내온 「民族思想의 源流」(敎文社). 이는 제주대학의 안창범 교수가 수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역저이다.

이 책의 골격은 '神仙道の 근원을 규명'한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신선이라는 말은 많이 써왔으나 그 도맥의 뿌리를 체계화시켜보지는 못했던 차에 안교수가 내놓은 이 책은 그 신선도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각적으로 밝혀 놓았다. 즉, 신선도의 종교적 구성요건과 실제적 근거를 비롯하여 신선도의 발생학적 원리, 신선도의 사상에서 삼일신교를, 신선도의 계율에서 3倫5戒를 설명하였고 그것이 곧 五倫의 시원이 되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신선도의 종교의식, 곧 제천의식을 밝히고 화랑道와 화랑徒, 또한老子, 석가, 공자의 삼교사상과 신선도와의 상관성을 설명하면서 기존학설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하였다.

분단민족을 통일할 기본이념이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류사상의 원천을 거론한 배달동이사상의 뿌리를 캐낸 수고와 탐과 정성으로 얹혀 있는 책이라고 본다. 태평양시대의

주역은 韓民族이라고 한다. 그것은 얽히고설켜 亂麻化된 지표부재상태에 있는 오늘의 인류에게 萬理一統의 이념을 간직한 원리가 바로 우리의 뿌리사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바는, 이렇게 오늘에 절실한 이 책이 한글로 씌어져서 우리 젊은이들, 국민의 거의 7할을 차지하는 한글 세대에게 쉽게 또 널리 읽혀졌으면 하는 것이다. 다음 판을 낼 적에는 불필요한 한자는 줄이고 꼭 필요한 한문은 괄호처리가 되었으면 한다.

방향지표를 못찾고 있는 21세기의 출발점에서 세계의 모든 사상을 포용할 수 있는 神·人 합일의 사상, 즉 '홍익인간'의 철학적 광맥을 발굴해낸 작업이었기에 더욱 그 의의가 크다.

어쨌든 민족통일과 세계평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줄 홍익사상의 발을 구석 구석 들추어냈다는 데에서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교수의 민족사상 발굴작업이 끊이지 않기를 기대한다.

宋鎬洙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 開天大學학장 · 철학박사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고 싶은 책

값 3,300 원



*이 마크는 마음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見)는 뜻입니다.

서울·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2 호
☎ 739-2520, 738-7709



해외여행보다 더 먼저 떠나야 할 여행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앨버트 크라스너 / 이준호 옮김

저마다 여행은 떠나지만 돌아오는 길은 늘 공허할 뿐입니다. 무릇 모든 여행은 나에게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멀리 떠나지 않아도 모든것을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 6월 15일 발간예정